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7 월 17 일 (업데이트)

원문 언어: 프랑스어

국가정황정보(COI) 포커스

기니

민족 현황

주의

이 국가정황정보(COI) 문서는 '국가정황정보 처리에 관한 유럽 연합 공통지침(lignes directrices de l'Union européenne pour le traitement de l'information sur le pays d'origine, 2008 년 4 월)' 과 현행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벨기에 정부 산하 난민무국적자 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aux réfugiés et aux apatrides, CGRA)의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Département de recherche d'information sur les pays d'origine, Cedoca)가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개별 국제 망명 신청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정책을 대변하거나 견해를 표명하지 않으며, 국제 망명신청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가 정해진 기한 내에, 출처의 교차 검증에 유의하며 엄선한 광범위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Cedoca 는 본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으나, 제시된 분석이 반드시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특정 사건, 인물 또는 단체가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사용된 모든 출처는 참고문헌에 명시돼 있다.

이 국가정황정보(COI) 보고서는 벨기에 정부 산하 난민무국적자 위원회(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for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CGRS)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에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황정보 처리에 관한 유럽 연합 공통지침(Common EU Guidelines for processing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2008 년 4 월)을 따르며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개별 국제 망명신청의 심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어떠한 정책 대변이나 견해 표명도 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국제 망명신청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출처의 지속적인 교차 검증에 유의하면서 엄선된 광범위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되었다.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는 본 국가정황정보(COI)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으나 제공된 정보가 반드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특정 사건, 인물 또는 단체가 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인물 또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출처는 참고문헌에 명시돼 있다.

요약

참고 가능한 통계에 따르면, 풀라니족(Peuls)은 기니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말링케족(Malinkés)은 30%, 수수족(Soussous)은 20%, 그 밖의 민족은 10%를 차지한다. 풀라니족은 중기니(Moyenne Guinée), 말링케족은 상기니(Haute Guinée), 수수족은 기니 해안지역(Guinée Maritime)에 주로 분포한다. 산림지역(Région forestière)에는 크펠레족(Kpellés)과 키시족(Kissis) 등 다양한 민족이 분포한다.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는 코나크리(Conakry)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민족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한 소식통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 등 공동체 간에 화합의 분위기가 지배적임을 강조한다. 민족 간 혼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학자 알파 아마두 바노 바리(Alpha Amadou Bano Barry)는 기니의 여러 민족이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고 설명한다. 차이는 주로 언어와 조직 체계 측면에서 나타난다.

마마디 둠부야(Mamadi Doumbouya)가 이끄는 군부는 2021년 9월 5일 쿠데타 직후에는 민족 간 통합 의지를 표명했으나, 알파 콩데(Alpha Condé) 통치 시기에 이미 불거졌던 민족 갈등은 곧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국가결집발전위원회(Comité national du rassemblement et du développement, CNRD)가 집권한 후 말링케족은 실제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여전히 기니 정치는 말링케족과 풀라니족 사이의 분열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풀라니족 대통령이 선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풀라니족의 주요 거주지역인 르프랑스 도로(route Le Prince)는 코나크리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이다. 쿠데타 이후 잠시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곧 강력한 경찰력과 총기 사용이 수반되는 폭력 사태가 다시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2019년 이후 시위 희생자의 대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며 풀라니족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기니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무력 사용의 피해자에는 다양한 민족과 지역 출신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AI)는 풀라니족이 단지 해당 출신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2016년 7월 법률(Loi de juillet 2016 relative à la cyber sécurité et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 혐오 콘텐츠의 유포를 처벌한다. 실제로 여러 블로거와 활동가가 인터넷상에서의 차별적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기니의 한 인류학자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기니 SNS에서 집단 간 대립을 조장하는 민족적 담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

통계 수치에 따르면, 풀라니족(Fulani)은 기니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말링케족(Malinké)은 30%, 수수족(Soussou)은 20%, 그 밖의 민족은 10%를 차지한다. 풀라니족은 중기니(Middle Guinea)에 분포하고, 말링케족은 상기니(Upper Guinea), 수수족은 기니 해안지역(Maritime Guinea)에 주로 분포한다. 기니 산림지역(Forested Guinea)에는 크펠레족(Kpelle)과 키시족(Kisi) 등 다양한 민족 집단이 거주한다.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는 코나크리(Conakry)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민족 집단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참고한 소식통들 역시 가정과 지역사회 등 공동체 간에 화합의 분위기가 지배적임을 강조한다. 민족 간 혼인이 그 예이다. 사회학자인 알파 아마두 바노 바리(Alpha Amadou Bano Barry)는 기니의 여러 민족이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고 설명한다. 차이는 언어와 조직 측면에서 나타난다.

마마디 둠부야(Mamadi Doumbouya)가 이끄는 군부는 2021년 9월 5일 쿠데타 직후 처음에는 통합 의지를 표명했으나, 알파 콩데(Alpha Condé) 통치 시기에 이미 이용되었던 민족 간 갈등이 곧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국가결집발전위원회(Comité national du rassemblement et du développement, CNRD)가 집권한 후 말링케족은 실제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기니 정치의 특징은 특히 말링케족과 풀라니족 등의 민족 간 분열이며, 풀라니족 중에서는 한 번도 대통령이 선출된 적이 없다.

풀라니족의 주요 거주지역인 르프랭스 도로(route Le Prince)는 코나크리에서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이다. 쿠데타 이후 겉보기에 자유로운 시기가 지나간 뒤, 강력한 경찰력과 총기를 사용하는 폭력이 다시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2019년 이후 시위 희생자의 대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며 풀라니족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모든 민족 및 지역 출신들이 전국에서 불법 무력 사용의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AI)는 풀라니족이 그 출신 민족을 이유로 주요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2016년 7월 법률(July 2016 Law on Cyber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 혐오 콘텐츠의 유포를 처벌한다. 여러 블로거와 활동가들이 인터넷상에서의 차별적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기니의 한 인류학자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분위기는 기니의 SNS에서 집단 간 대립을 조장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민족 담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요약.....	3
요약.....	3
약어 목록.....	6
서론.....	7
1. 주요 민족.....	8
2. 민족 간의 관계.....	9
3. 민족과 정치의 관계	11
4. 르프랭스 도로의 상황.....	13
5. SNS상에서의 민족 담론 게시물	15
참고문헌.....	16

약어 목록

AI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CISR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Commission de l'immigration et du statut de réfugié du Canada)
CNRD	국가결집발전위원회(Comité national du rassemblement et du développement)
CNRS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OFPRA	프랑스 난민무국적자보호소(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NG	비정부기구(Organisation non gouvernementale)
PA	거점(Point d'appui)
RFI	라디오프랑스앵테르나시오날(Radio France internationale)
RGPH3	제 3 차 인구주택총조사(Troisième recensement général de la population et de l'habitation)
RPG	기니인민연합(Rassemblement du peuple de Guinée)
UFDG	기니민주세력연합(Union des forces démocratiques de Guinée)
USDOS	미국 국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서론

본 보고서는 기니의 민족 현황을 다루며, 2023년 3월 23일 자 국가정황정보(COI) 포커스를 업데이트한 문서이다.

본 보고서는 모든 정보를 다루지는 않지만,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들은 온라인 언론 및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ONG)의 공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는 기니 역사학자 이스마엘 바리(Ismaël Barry)가 2022년에 발표한 「기니의 민족 및 국가 건설의 문제(Question ethnique et problématique de la construction de la nation en Guinée)」¹와, 마마두 라민 디알로(Mamadou Lamine Diallo)가 2021년 3월 12일 보르도몽테뉴대학교(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에서 공개 심사를 거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민족에 관한 담론, 민족 담론: 기니의 정치적 언어에서 나타나는 발화적 접근, 이데올로기 및 상투어(Discours à l'ethnie, discours ethnique : approche énonciative, idéologie et lieux communs dans la parole politique en Guinée)」²도 참조했다.

제 1장과 제 2장에서는 기니의 주요 민족 집단과 그들 간의 유대관계를 다룬다. 제 3장에서는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가 민족과 정치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 4장에서는 코나크리에 위치한 르프랑스 도로를 다룬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SNS 상에 나타나는 민족적 성격의 게시물을 다룬다.

이번 업데이트를 위한 조사는 2025년 6월 23일에 종료되었다.

¹ Barry I., 12/07/2022

² Diallo M. L., 2021, [url](#)

1. 주요 민족

2014년 5월 7일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Commission de l'immigration et du statut de réfugié du Canada, CISR) 문서는 특히 군경의 민족 구성을 다루면서, 기니 전체 인구 중 풀라니족이 40%, 말링케족이 30%, 수수족이 20%, 그 밖의 민족이 10%를 차지한다고 명시한다.³ 2018년 2월 8일 TV5 Monde 뉴스와 인터뷰한 기니의 정치학자 코나크리 대학교 연구원인 사이쿠 우마르 발데(Saïkou Oumar Baldé) 역시 동일한 비율을 언급했다.⁴

2014년 제3차 인구주택총조사(Troisième recensement général de la population et de l'habitation, RGPH3)에 따르면,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기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풀라어(peul)인 것으로 나타났다.

"풀라어(Poullar)는 라베(Labé)주(94.5%), 마무(Mamou)주(92.4%), 보케(Boké)주(45.8%)에서 주로 사용된다. 코나크리주에서는 수수어(37%)에 이어 2위(34%)를 차지하고, 파라나(Faranah)주에서는 말링케어에 이어 2위(27.9%), 킨디아(Kindia)주에서는 수수어에 이어 2위(35.2%), 칸칸(Kankan)주에서는 말링케어에 이어 2위(3.9%)를 차지한다. 은제레코레(N'Zérékoré)주에서는 코니아카어(Koniaka)(24.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뒤를 이어 크펠레어(Kpélè)(23.4%), 키시어(Kissi)(15.4%) 및 말링케어(9.2%)가 사용된다."⁵

서론에 언급된 2021년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민족 관련 통계가 포함된 마지막 인구조사가 1955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각 민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 게다가 동화된 민족(예: 수수족 문화권에 편입된 바가족(Bagas)과 란두마족(Landoumas)), 근연 민족(투쿨뢰르족(Toucouleurs)과 풀라니족), 하위 집단(예: 말링케족 내 쿠랑코족(Kourankos))간의 결합이나 혼합 양상이 존재하며, 이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6,7}

2022년에 출간된 이스마엘 바리의 저서에 따르면, 수십 개의 민족이 "기니의 민족 지형"을 구성한다. 주요 민족으로는 풀라니족, 말링케족, 수수족, 키시아족, 토마족(Tomas)(또는 로마족(Lomas)), 게르제족(Guerzés)(또는 크펠레족)이 있다. 분포를 살펴보면, 딩기라예(Dingiraye) 지역에 집중된 투쿨뢰르족(Toucouleurs)을 제외한 풀라니족은 중기니에, 말링케족과 와솔롱케족(Ouassolonkés)⁸은 상기니에, 수수족과 동화된 민족(전국에 거주하는 잘롱케족(Djalankés)은 제외)은 하기니에, 그리고 크펠레족, 로마족, 키시아족, 코노족(Konos) 및 마농족(Manons)은 기니 산림지역에 주로 거주한다.⁹

한편, 코나크리주에는 모든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¹⁰

³ CISR, 07/05/2014, [url](#)

⁴ TV5 Monde, 08/02/2018, [url](#)

⁵ INS, 12/2017, p. 86, [url](#)

⁶ Diallo M. L., 2021, p. 34, [url](#)

⁷ Voir aussi sur la question des statistiques : Guineenews, 06/10/2020, [url](#) ; Diallo M. R., 2018, p. 12, [url](#)

⁸ Il s'agit de Peuls d'origine qui sont culturellement assimilés aux Malinkés.

⁹ Barry I., 12/07/2022, p. 25

¹⁰ Forum réfugiés, 09/2024, [url](#)



기니 주요 민족의 지리적 분포¹¹

2. 민족 간의 관계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는 코나크리(Conakry)에서 수행한 여러 임무(2006 년, 2011 년, 2019 년, 2022 년)를 통해 민족 간에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현지에서 만난 정부 기관 관계자, 정치 활동가, 인권단체 및 협회의 대표, 언론인, 시민사회 대표 등 모든 면담자들이 기니의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여러 민족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국가정황정보연구센터(Cedoca)는 코나크리 주민들이 출신 민족과 무관하게 서로 수수어로 소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2019 년 1 월 11 일 Globe reporters 인터뷰에서 사회학자 엠마누엘 파소 사노(Emmanuel Fasso Sano)가 확인해 준 사실이기도 하다.¹²

이스마엘 바리는 2022 년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하기니-중기니, 중기니-상기니, 상기니-산림지역 등 지역 간 접경지대나 일반적으로 국제도시의 성격을 띠는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공동체 간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통해 강력한 인적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지역에서 [...] 민족 간 혼인과 다언어 사용 현상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빈번하다. [...] 도시 중심가에서 청첩장, 부고, 장례 답례장을 수집해 보면 알 수 있다. 절대다수의 경우, 해당 인물의 출신 민족이 어디이든 간에, 문서에 등장하는 성씨들을 살펴보면 그 가족이 자신의 출신 민족을 훌쩍 넘어선 광범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¹¹ Alternatives économiques, s.d., [url](#)

¹² Globe reporters, 11/01/2019, [url](#)

¹³ Barry I., 12/07/2022, p. 104

코나크리 손포니아대학교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알파 아마두 바노 바리는 기니 정치 체제에 관한 2023년 2월 28일 자 에세이에서, 기니의 여러 민족이 공통의 역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혼인, 가부장제,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연대와 같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 차이는 주로 언어와 조직적 측면에 국한된다. 바리 교수는 "기니인들은 예비 배우자 간의 감정과 경제력 외에는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같은 동네와 같은 마당에서 어울려 살고 서로 혼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¹⁴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¹⁵의 2023년 3월 6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출신 민족보다 국가 정체성에 더 강한 애착을 보였다. 대다수(92%)가 다른 기니인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89%는 다른 시민들이 자신을 (민족이 아닌) 기니인으로 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0%는 가족 구성원이 타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다수 응답자는 이민자, 타 정당 지지자, 타 종교인을 이웃으로 두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나, 동성애자가 이웃이 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한편, 민족 차별과 관련해 응답자의 50%는 자신이 속한 민족이 정부로부터 "가끔"(23%), "자주"(13%) 또는 "항상"(14%)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답했다.¹⁶

비전기니(Vision Guinée)는 2023년 6월 29일 자 기사에서 민족 집단 간 유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니의 민족들은 타 민족에 대해 폐쇄적이거나 고립된 채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융합, 기억의 공유, 상호의존 관계, 지속적인 교류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공존 속에 있다. 국가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민족도 스스로 고립을 택하지 않았다. [...] 적어도 이곳에서는 서로의 언어를 말하고, 혼인하고, 큰 마찰 없이 어울려 살며, 서로 토지를 나누어 준다."¹⁷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¹⁸ 소속 연구원이자 정치학 박사인 뱅상 푸셰(Vincent Foucher)는 2023년 기사에서 "민족성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는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¹⁹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2024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기니인에게 출신 민족은 이웃 및 시민과의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많은 이들이 민족 간 혼인 가정 출신이다.²⁰

¹⁴ GuinéePolitique (Barry A. A. B.), 28/02/2023, [url](#)

¹⁵ Afrobarometer est un réseau de recherches panafricain et indépendant qui réalise des sondages sur des sujets économiques, politiques et sociaux.

¹⁶ Afrobarometer, 06/03/2023, [url](#)

¹⁷ Vision Guinée (Barry I.), 29/06/2023, [url](#)

¹⁸ Vincent Foucher a été analyste principal au bureau Afrique de l'Ouest de l'ONG International Crisis Group et rédacteur en chef des revues Politique africaine et Afrique contemporaine.

¹⁹ Foucher V., 2023, p. 6, [url](#)

²⁰ Bertelsmann Stiftung, 19/03/2024, p. 19, [url](#)

기니의 한 인류학자는 풍자 신문 르랭크스(Le Lynx) 2025년 5월 13일 자 기사에서, 국가 전반에 만연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기니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내가 풀라니족이라는 사실이 차별이나 서열화의 요인이 된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나는 공립학교에서 수수족, 말링케족, 산림지역 출신 친구들과 함께 자랐고, 이러한 다양성은 내게 인간적·문화적 풍요로움을 주었을 뿐이다. 그 덕분에 나는 수수어와 말링케어를 배웠다. 다양성은 나를 형성하고 나의 기반이 되었다. 다양성은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이자 개방을 위한 지렛대로 남아야 한다."²¹

3. 민족과 정치의 관계

2023년 3월 23일 자 국가정황정보(COI) 포커스에서 설명했듯이, 알파 콩데 대통령 재임 시절 정치권은 민족을 선거 기간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²²

이스마엘 바리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 옳든 그르든 여론은 국가 원수를 그의 출신 민족과 동일시 하고, 그가 행사하는 권력을 해당 민족이 행사하는 권력으로 간주한다."²³ 특히 알파 콩데 "정권"과 관련하여, 저자는 "민족중심주의의 독"이라는 표현을 쓰며 "민족 정체성이 이토록 뚜렷해진 적이 없으며, 국가의 사회적 조직이 이토록 훼손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해당 자료는 "이러한 주기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간 평화적 공존의 다양한 전통적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한다.²⁵

2023년 기니의 인권 상황을 다룬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SDOS) 2024년 보고서 역시 정치 캠페인 기간 중 민족 간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²⁶

2021년 9월 5일 쿠데타 이후 국가 원수가 된 마마디 뒤편 장군은 알파 콩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말링케족이다.²⁷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그는 집권 당시 정치적·민족적 소속을 넘어 기니인들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²⁸

르뷔앵테르나시오날(Revue internationale)은 2022년 1월 6일 자 기사에서 "국가결집발전위원회(Comité national du rassemblement et du développement, CNRD)가 알파 콩데와 마마디 뒤편으로 대표되는 말링케족 공동체를 편애하고, 이로 인해 풀라니족과 수수족이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²⁹

2022년 3월 21일 쥘아프리카(Jeune Afrique)의 편집국장 프랑수아 수당(François Soudan)은 군부와 기니민주세력연합(Union of Democratic Forces of Guinea, UFDG)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부는 불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말링케중심주의(Malinke-centrism) 의혹을 사고 있으며, 제1야당인 기니민주세력연합(UFDG)은 풀라니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공동체주의를 문제 삼으며 상호 비난하고 있다.³⁰

²¹ Le Lynx (Kervella-Mansaré Y.), 13/05/2025, [url](#)

²² CGRA, 23/03/2023, [url](#)

²³ Barry I., 12/07/2022, p. 64

²⁴ Barry I., 12/07/2022, p. 100

²⁵ Barry I., 12/07/2022, pp. 66-67

²⁶ USDOS, 23/04/2024, [url](#)

²⁷ TV5 Monde (Eboulé C.), 24/12/2021, [url](#)

²⁸ AFP via La Libre Afrique, 22/10/2021, [url](#) ; 24heures, 07/10/2021, [url](#)

²⁹ La Revue internationale, 06/01/2022, [url](#)

³⁰ Jeune Afrique (Soudan F.), 21/03/2022, [url](#)

기니 정치의 민족화를 다룬 2022년 3월 27일 자 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5일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했음에도 민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 문제는 "기니 정당 정치와 그 표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사는 이어 "이러한 중요성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민족성이 가장 가시화되는 순간은 상대를 비난할 때이며, 각 진영은 기니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면서 정적을 민족중심주의자로 몰아붙인다"고 분석했다.³¹

2024년 공개된 '2023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기니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콩데 정권 하에서 민족적 충성심은 유권자와 정당 지도자의 정치적 선택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쳤다. 각 정당은 정책 플랫폼이나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새로운 지지자를 유입하기보다는, 각자의 민족 집단에 암묵적으로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상호 적대감과 폭력의 위험을 조장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논리를 따른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³²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국가 기관과 조직의 민족 구성에 관한 공식 보고서가 없다고 밝힌다.³³

2024년³⁴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은 정부 내 말링케족이 과대 대표되는 반면 풀라니족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민간 정부 내에 산림지역 주민 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 출신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 출신이자 2008~2009년 군정을 이끈 전 국가원수 무사 다디스 카마라(Moussa Dadis Camara)가 '9월 28일 학살 사건' 재판의 주요 피고인이 되면서, 자신들이 점차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비록 시민권 자체가 코트디부아르의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도구화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풀라니족을 비롯한 기니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³⁵

하기니 쿤다라(Koundara)에 거주하는 소수 공동체인 바사리족(Bassari)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미국 국무부(USDOS)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공무원들이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공문서 발급 조건으로 어감이 더 '기니식'인 성으로 개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³⁶ 2024년 11월 25일 기니마탱(Guineematin) 기사는 쿤다라의 바사리족이 공공 행정 차원에서 겪은 차별과 관련하여 그들의 성(방가르(Bangar), 방고닌(Bangonine), 베문(Bémoune), 비앙킨치(Bianquinch), 비에스(Bies), 비디아르(Bidiar), 빈디아(Bindia), 보낭(Bonang), 부반(Boubane) 등)이 생소하여 외국인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³⁷

2023년 5월 에그몽연구소(Institut Egmont)에서 발행한 기니 과도정부 관련 보고서는 군부 하의 민족 간 긴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결집발전위원회(CNRD)의 출범과 함께 말링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말링케족과 풀라니족을 합치면 인구의 최대 70%에 달하기 때문에, 기니 정치는 종종 이 두 민족 간의 힘겨루기로 묘사된다. 2010년 선거 이후 두 거대 민족 간의 대립은 말링케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진 알파 콩데의 기니인민연합(Rassemblement du peuple de Guinée, RPG)과 풀라니족 기반으로 여겨지는 셀루 달랭 디알로(Cellou Dallein Diallo)의 기니민주세력연합(UFDG) 간의 대결 구도로 나타났다.

³¹ André G., Foucher V., 27/03/2025, p. 4, [url](#)

³² Freedom House, 2024, [url](#)

³³ Freedom House, 2024, [url](#)

³⁴ Le rapport couvre la période du 1er février 2021 au 31 janvier 2023.

³⁵ Bertelsmann Stiftung, 19/03/2024, p. 7, [url](#)

³⁶ USDOS, 23/04/2024, [url](#)

³⁷ Guineematin (Diallo M. Y.), 25/11/2024, [url](#)

풀라니족은 독립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직에 오르지 못한 반면, 말링케족에서는 3 명(세쿠 투레(Sékou Touré), 알파 콩테, 마마디 둠부야), 하기니의 수수족에서는 1 명(란사나 콩테(Lansana Conté)), 이른바 '산림지역'에서는 1 명(산림지역 출신 민족인 게르제족의 다디스 카마라(Daddis Camara))의 대통령이 배출됐다. 따라서 국가결집발전위원회(CNRD)는 말링케족 권력의 역사적 연속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니의 다민족 정치라는 암묵적 규칙을 깨뜨림으로써 말링케족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³⁸

범아프리카 정보·탐사 플랫폼인 아프리카인 아규먼트(African Arguments)는 2024 년 9 월 5 일 자 기사에서, 국가결집발전위원회(CNRD)가 알파 콩테의 정당인 기니인민연합(RPG)을 집중 공격한 이유를 분석했다. 매체는 "출신 민족이 정당의 주요 기반이 되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동일한 사회적 기반, 즉 기니 최대 인구 집단 중 하나인 말링케족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국가결집발전위원회(CNRD)에는 알파 콩테 정권의 전직 관료들(주로 말링케족)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한편 이 매체는 풀라니족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셀루 달랭 디알로의 기니민주세력연합(UFDG)에 대해, "군부의 권력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표적이 되었다"고 분석했다.^{39,40}

동일한 출처에 따르면, 산림지역 출신 다수는 알파 콩테가 그들과의 관계를 의식해 신중하게 무기한 연기해 온 9 월 28 일 학살 사건 재판을 이유로 국가결집발전위원회(CNRD)에 어느 정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⁴¹

기니의 풍자 신문 르랭크스(Le Lynx)는 2024 년 7 월 11 일 자 기사에서 군(軍) 역시 현 집권 세력의 "민족 전략"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역대 국가원수들은 자신의 출신 민족 내에서 채용과 승진을 단행했고, 사실상 지휘 계통과 엘리트 부대의 대부분을 자기 민족에게 배정했다. 국가결집발전위원회(CNRD)의 최근 채용과 군 관리 정책 또한 이러한 공동체주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가기관, 군, 정당의 민족화로 인해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닌 민족과 지역에 따른 선택으로 전락했다."⁴²

4. 르프랭스 도로의 상황

함달라예(Hamdallaye) 로터리에서 밤베토(Bambéto)와 코사(Cosa)를 거쳐 카그벨렌(Kagbelen) 지구까지 이어지는 르프랭스 도로(route Le Prince)는 코나크리 내 야당이 주도하는 모든 사회·정치적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 주민은 주로 풀라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³

³⁸ Egmont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Vircoulon T., Piers S.), 05/2023, [url](#)

³⁹ African Arguments (Foucher V., Petit J.), 05/09/2024, [url](#)

⁴⁰ Voir à ce sujet : CGRA, 22/04/2025, [url](#)

⁴¹ African Arguments (Foucher V., Petit J.), 05/09/2024, [url](#)

⁴² Le Lynx (Guilédji A. B.), 11/07/2024, [url](#)

⁴³ CGRA, 23/03/2023, [url](#)



함달라예와 카그벨렌을 잇는 르프랑스 도로⁴⁴

2021년 9월 5일 쿠데타 직후 주민들은 자유를 되찾았다고 증언했으나,⁴⁵ 라디오프랑스앵테르나시오날(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은 2022년 9월 23일 자 기사에서 "짧은 소강상태 후 이 도로 일대에 폭력이 되살아났다"고 보도했다. 알파 콩데 대통령 재임 시절 설치된⁴⁶ 치안 거점(Points d'appui, PA)은 폐지되었으나 2022년 6월 이후 르프랑스 도로는 다시 경찰의 치안 유지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은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증언한다.⁴⁷

국제앰네스티(AI)는 2024년 보고서 「상처 입은 청년들: 기니 내 불법 무력 사용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와 정의의 시급성(Une jeunesse meurtrie, Urgence de soins et de justice pour les victimes d'usage illégal de la force en Guinée)」에서, 2019년 이후 시위 중 사망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며 풀라니족 성(姓)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기니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무력 사용의 피해자에는 다양한 민족과 지역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AI)는 풀라니족이 단지 해당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국제앰네스티(AI)는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방위보안군으로부터 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AI)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민족성이 빈번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대부분의 정당이 민족적·지역적 성격을 동시에 띠는 기니 사회 전반의 공동체 간 긴장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⁴⁸

⁴⁴ Jeune Afrique (Niakate H.), 17/02/2014, [url](#)

⁴⁵ RFI, 09/09/2021, [url](#) ; TV5 Monde, 07/10/2021, [url](#)

⁴⁶ Les PA sont des patrouilles mixtes composées à la fois de policiers, de gendarmes et de militaires : Africaguinee (Diallo B.), 19/11/2018, [url](#)

⁴⁷ RFI, 23/09/2022, [url](#)

⁴⁸ AI, 2024, pp. 19-20, [url](#)

5. SNS상에서의 민족 담론 게시물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2016 년 7 월 법률(Loi de juillet 2016 relative à la cyber sécurité et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L/2016/037/AN) 제 26 조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성 또는 외국인 혐오성 이론이나 사상이 담긴 메시지, 사진, 글, 그림 또는 그 밖의 표현물을 다운로드, 유포 및 제공하는 행위를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한다.⁴⁹

인터넷과 SNS 상의 게시물에 관한 2023 년 7 월 6 일 자 보고서에서, 프랑스 난민무국적자보호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는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블로거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몇 가지 기소 사례를 지적한다. 정부 당국이 주도한 이러한 기소는 때로 온라인에 게시된 "공개적 모욕, 협박,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 혐오 발언"에 대한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다.⁵⁰

일례로, 예술가 잭 움팩(Jack Woumpack)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모욕 및 민족 차별적 발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3 년 6 월 말 코야(Coyah) 1 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 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⁵¹ 그는 같은 해 6 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라니족 공동체를 공격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가, 이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코나크리 항소법원 검사장에게 기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까지 구금 상태에 있었다.⁵²

2025 년 4 월 17 일, 칼룸(Kaloum) 1 심 법원은 민족 차별 혐의로 기소된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징역 2 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SNS 에 특정 공동체를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 광고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⁵³

2025 년 5 월 13 일 자 르랭크스(Le Lynx) 기사에서 기니의 인류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늘날 SNS 상에서는 '에트노(ethno, 민족)'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같은 나라의 타 민족을 공격하는 일부 블로거들의 담론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기니에서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 민족성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도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던진다."⁵⁴

⁴⁹ Loi N° L/2016/037/AN relative à la cyber-sécurité et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en République de Guinée, 28/07/2016, [url](#)

⁵⁰ OFPRA, 06/07/2023, [url](#)

⁵¹ Guineematin (Diallo F. D.), 20/06/2023, [url](#)

⁵² Planete 7 (Diallo P.), 12/09/2023, [url](#)

⁵³ Guineematin (Diallo M. Y.), 18/04/2025, [url](#)

⁵⁴ Le Lynx (Kervella-Mansaré Y.), 13/05/2025, [url](#)

참고문헌

문헌 및 시청각 자료 출처

24heures, *Un Premier ministre nommé par la junte au pouvoir en Guinée*, 07/10/2021, <https://www.24heures.ch/un-premier-ministre-nomme-par-la-junte-au-pouvoir-en-guinee-385133617688> [consulté le 24/06/2025]

Africaguinee (Diallo B.), *Urgent/violences à Conakry : le Gouvernement réquisitionne l'armée*, 19/11/2018, <https://www.africaguinee.com/articles/2018/11/19/urgentviolences-conakry-le-gouvernement-requisitionne-l-armee> [consulté le 13/03/2023]

African Arguments (Foucher V., Petit J.), *Guinea: When the putschists overstay their welcome*, 05/09/2024, <https://africanarguments.org/2024/09/guinea-when-the-putschists-overstay-their-welcome/> [consulté le 13/06/2025]

Afrobarometer, *Communiqué de presse. Les Guinéens sont attachés à leur identité nationale plutôt qu'à leur appartenance ethnique*, 06/03/2023, https://www.afrobarometer.org/wp-content/uploads/2023/03/GUI_R9_Comm-de-presse-Identite-nationale-en-Guinee-20feb23.pdf [consulté le 13/06/2025]

Agence France-Presse (AFP) via La Libre Afrique, *Guinée: le chef de la junte nomme 3 ministres et le 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22/10/2021, <https://afrique.lalibre.be/64789/guinee-le-chef-de-la-junte-nomme-3-ministres-et-le-secretaire-general-du-gouvernement/> [consulté le 24/06/2025]

Alternatives économiques, *Les régions d'origine des principaux groupes ethniques en Guinée Conakry*, s.d., <https://www.alternatives-economiques.fr/regions-dorigine-principaux-groupes-ethniques-guinee-conakry-0109201372591.html> [consulté le 24/06/2025]

Amnesty International (AI), *Une jeunesse meurtrie. Urgence de soins et de justice pour les victimes d'usage illégal de la force en Guinée*, 2024, <https://www.amnesty.org/fr/wp-content/uploads/sites/8/2024/05/AFR2979532024FRENCH.pdf> [consulté le 24/06/2025]

André G., Foucher V., *Soixante minutes de cours d'histoire sans aucun papier : Historiographies vernaculaires et ethnicisation du politique en Guinée*, in *African Studies*, Issue : 9/2025, 27/03/2025, <https://journals.openedition.org/sources/2583> [consulté le 19/06/2025]

Barry I., *Question ethnique et problématique de la construction de la nation en Guinée*, Guinée : L'Harmattan, 12/07/2022

Bertelsmann Stiftung, *BTI 2024 Country Report – Guinea*, 19/03/2024, https://bti-project.org/fileadmin/api/content/en/downloads/reports/country_report_2024_GIN.pdf [consulté le 16/06/2025]

Commissariat général aux réfugiés et aux apatrides (CGRA), *COI Focus Guinée. La situation ethnique*, 23/03/2023, https://www.cgra.be/sites/default/files/rapporten/coi_focus_guinee_la_situation_ethnique_20230323.pdf [consulté le 13/06/2025]

Commissariat général aux réfugiés et aux apatrides (CGRA), *COI Focus Guinée. Situation politique sous la transition*, 22/04/2025, https://www.cgra.be/sites/default/files/rapporten/coi_focus_guinee_situation_politique_sous_la_transition_2025_0422.pdf [consulté le 13/06/2025]

Commission de l'immigration et du statut de réfugié du Canada (CISR), *Guinée : information sur la composition ethnique de la police et des forces armées ; traitement réservé aux Peuls par les autorités, y compris la police et l'armée, et lorsqu'un Peul a besoin de la protection de l'État ; information sur le camp Makambo, y compris son emplacement et son but (2010-mai 2014)*, 07/05/2014, <http://irb-cisr.gc.ca/Fra/ResRec/RirRdi/Pages/index.aspx?doc=455309&p1s=1> [consulté le 24/06/2025]

Diallo M. L., *Discours à l'ethnie, discours ethnique : approche énonciative, idéologie et lieux communs dans la parole politique en Guinée*, 2021, <https://theses.hal.science/tel-03244270/document> [consulté le 24/06/2025]

Diallo M. R., *Ethnicité et processus démocratique en Guinée, de 1990 à 2015*, 2018, https://scd-resnum.univ-lyon3.fr/out/theses/2018_out_diallo_e_h.pdf [consulté le 24/06/2025]

Egmont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Vircoulon T., Piers S.), *Où va la transition guinéenne ? Ou l'insoutenable légèreté du « colonellisme »*, 05/2023, https://www.egmontinstitute.be/app/uploads/2023/05/Thierry-Vircoulon_Paper_122_vFinal.pdf?type=pdf [consulté le 17/06/2025]

Forum réfugiés, *Fiche documentaire. Contexte social et politique de la Guinée*, 09/2024, https://www.forumrefugies.org/images/Ev%C3%A9nements/GUINEE_-_FICHE_Contexte.pdf [consulté le 20/06/2025]

Foucher V., *La Guinée contemporaine entre autocratie électorale et pouvoir militaire : éléments d'une trajectoire*, 2023, <https://hal.science/hal-04380052v1/document> [consulté le 20/06/202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Guinea*, 2024, <https://freedomhouse.org/country/guinea/freedom-world/2024> [consulté le 13/06/2025]

Globe reporters, *La diversité des ethnies fait la beauté de la Guinée*, 11/01/2019, <http://www.globe-reporters.org/campagnes/guinee-qui-es-tu/culture-et-francophonie/article/la-diversite-des-ethnies-fait-la-beaute-de-la-guinee> [consulté le 24/06/2025]

Guineematin (Diallo F. D.), *Propos ethnocentriques : Jack Woumpack libéré par le tribunal de Coyah*, 20/06/2023, <https://guineematin.com/2023/06/20/propos-ethnocentriques-jack-woumpack-libere-par-le-tribunal-de-coyah/> [consulté le 23/06/2025]

Guineematin (Diallo M. Y.), *Conakry : Alexandre Morel Guillaume condamné pour discrimination ethnique*, 18/04/2025, <https://guineematin.com/2025/04/18/conakry-alexandre-morel-guillaume-condamne-pour-discrimination-ethnique/> [consulté le 23/06/2025]

Guineematin (Diallo M. Y.), *Guinée : les « Bassaris », une minorité ethnique encore discriminée au niveau de l'administration*, 25/11/2024, <https://guineematin.com/2024/11/25/guinee-les-bassaris-une-minorite-ethnique-encore-discriminee-au-niveau-de-ladministration/> [consulté le 16/06/2025]

Guineenews, *Guinée, le défi de l'alternance ethnique*, 06/10/2020, <https://guineenews.org/guinee-le-defi-de-lalternance-ethnique/> [consulté le 24/06/2025]

GuineePolitique (Barry A. A. B.), *Quel régime pour la Guinée?*, 28/02/2023, <https://www.guineepolitique.com/quel-regime-pour-la-guinee/> [consulté le 09/03/2023]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INS), *Troisième recensement général de la population et de l'habitation (RGPH3)*, 12/2017, https://www.stat-guinee.org/images/Documents/Publications/INS/rapports_enquetes/RGPH3/RGPH3_etat_structure.pdf [consulté le 24/06/2025]

Jeune Afrique (Niakate H.), *Guinée : voyage au cœur du « Chaudron »*, 17/02/2014, <http://www.jeuneafrique.com/Article/JA2771p106.xml0/> [consulté le 24/06/2025]

Jeune Afrique (Soudan F.), *Guinée : les étranges silences de Mamadi Doumbouya, par François Soudan*, 21/03/2022, <https://www.jeuneafrique.com/1325563/politique/guinee-les-etranges-silences-de-mamadi-doumbouya-par-francois-soudan/> [consulté le 24/06/2025]

La Revue internationale, *Guinée : la junte doit orchestrer rapidement une transition vers un nouvel ordre politique et constitutionnel*, 06/01/2022, <https://www.revue-internationale.com/2022/01/guinee-junte-transition-politique/> [consulté le 06/03/2023]

Le Lynx (Guilédji A. B.), *Le poison de l'ethnicité en Guinée : une gangrène silencieuse de l'Etat*, 11/07/2024, <https://lelynx.net/2024/07/le-poison-de-lethnicite-en-guinee-une-gangrene-silencieuse-de-letat/> [consulté le 16/06/2025]

Le Lynx (Kervella-Mansaré Y.), *Guinée : Sortir de l'ethnocentrisme pour penser une gouvernance inclusive*, 13/05/2025, <https://lelynx.net/2025/05/guinee-sortir-de-lethnocentrisme-pour-penser-une-gouvernance-inclusive/> [consulté le 19/06/2025]

Loi N° L/2016/037/AN relative à la cyber-sécurité et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en République de Guinée, 28/07/2016, <https://www.afapdp.org/wp-content/uploads/2018/05/Guinee-loi-2016037an-relative-a-la-cybersecurite-et-protection-des-donnees.pdf> [consulté le 24/06/2025]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 *Guinée : Poursuites contre des internautes en raison de publications sur Internet et les réseaux sociaux*, 06/07/2023, https://www.ofpra.gouv.fr/libraries/pdf.js/web/viewer.html?file=/sites/default/files/ofpra_flora/2307_gin_internautes_159765_web.pdf [consulté le 24/06/2025]

Planete 7 (Diallo P.), *Guinée : se cacher derrière l'humour pour propager des propos haineux à caractère ethnique*, 12/09/2023, <https://planete7.info/guinee-se-cacher-derriere-lhumour-pour-propager-des-propos-haineux-a-caractere-ethnique/> [consulté le 23/06/2025]

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 *Guinée: à Conakry, l'Axe renoue avec la violence*, 23/09/2022, <https://www.rfi.fr/fr/afrique/20220923-quin%C3%A9-%C3%A0-conakry-l-axe-renoue-avec-la-violence> [consulté le 24/06/2025]

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 *Guinée: la situation d'Alpha Condé au cœur de la mission de la Cédéao à Conakry*, 09/09/2021, <https://www.rfi.fr/fr/afrique/20210909-quin%C3%A9-la-situation-d-alpha-cond%C3%A9-au-c%C5%93ur-de-la-mission-de-la-c%C3%A9d%C3%A9ao-%C3%A0-conakry> [consulté le 24/06/2025]

TV5 Monde (Eboulé C.), *Guinée : qui est le lieutenant-colonel Mamady Doumbouya, nouvel homme fort du pays ?*, 24/12/2021, <https://information.tv5monde.com/afrique/guinee-qui-est-le-lieutenant-colonel-mamady-doumbouya-nouvel-homme-fort-du-pays-423421> [consulté le 24/06/2025]

TV5 Monde, *Guinée : la route Le Prince, "axe du mal" ou de la démocratie* [video], 07/10/2021, <https://afrique.tv5monde.com/information/guinee-la-route-le-prince-axe-du-mal-ou-de-la-democratie> [consulté le 24/06/2025]

TV5 Monde, *Guinée, élections on en parle* [video], 08/02/2018, <https://www.youtube.com/watch?v=zmVO6KP6qnl> [consulté le 24/06/202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SDOS), *2023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 Guinea*, 23/04/2024, <https://www.state.gov/reports/2023-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guinea/> [consulté le 13/06/2025]

Vision Guinée (Barry I.), *Identités ethniques et contrat citoyen en République de Guinée*, 29/06/2023, <https://www.visionguinee.info/identites-ethniques-et-contrat-citoyen-en-republique-de-guinee/> [consulté le 16/06/2025]

참고 소식통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망명 연구문서화센터(Austrian Centre for Country of Origin and Asylum Research and Documentation, ACCORD),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유엔(Nations unies).